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월 13일(주일) 제1228호



인도네시아 김의정 선교사와 엘로피 부족 아이들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2019 선교헌금 작성 ...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참여
선교사 케어, 제주Acts29훈련센터 가동, 네트워크 구축 등에 사용**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새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오늘(13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2019 선교헌금 작성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봉헌하는 선교헌금은 선교사 파송, 선교사 지원, 전방교회 개척 등 지구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900여 명이 77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2천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큰 획을 그었다. 2천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2천/1만 비전을 파송선교사 2천명과 사역자 1만 명에서 현장 선교사 2천명과 사역자 1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제주 Acts29훈련센터 건축을 시작하면서 현지인 선교사를 양육하고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연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각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선교사 케어, 제주Acts29훈련센터의

효율적인 가동, 전 세계 선교사, 단체, 교회의 네트워크 구축, 여름 아웃리치 확대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9 선교헌금 작성 행사에는 선교헌금 작성,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성은 오늘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CMS 신규, CMS 변경, 헌금봉투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CMS 방식이 편리하다. 기존 CMS

후원자는 자동으로 연장 되고, 헌금봉투 방식 후원자는 매년 신규로 작성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후원자도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로비에 마련되는 선교데스크에서도 선교헌금을 봉헌할 수 있다.

지난해 선교헌금은 총 119억을 작성했다. 선교사 후원 59억 50%, 선교사역비 30억 26%, 이주민 선교 12억 11%, 기관지원 11억 9% 등에 사용했다. 올해는 선교사 후원 60억, 선교사역비 31억, 이주민 선교 11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

문의: 02-3215-3616

하나은행 573-810034-09105 (온누리교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완주하자!

1월 19일까지 새벽 5시 20분 각 캠퍼스 본당

2018-2019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가 이제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끝까지 완주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2018-2019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1월 19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진행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는 CGNTV로도 참여할 수 있다. CGNTV는 새벽기도회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보혜사 성령', '성령세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보내심', '성령과 새마음', '성령과 생기' 등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성령과 자유', '성령과 성전', '성령과 직분', '성령과 양심', '성령과 예배', '성령과 계시'를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조직도 홈페이지 게재

'2019년 온누리교회 조직도'는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1월 13일)부터 게재됩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9 온누리교회 조직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onnuri.org

“섬기는 선교, 촉매가 되는 선교”

2019년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과 주요 과제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를 만나 2019년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과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들었다. 김 목사는 “온누리교회 선교는 섬기는 선교, 촉매가 되는 선교를 위하여 융합선교, 전략선교, 계획선교, 협력선교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올해 주요 과제는 “선교지에서 추방된 선교사 케어, 전 세계 교회와 선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주Acts29훈련센터의 효율적인 가동”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먼저 성도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표어로 삼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온누리교회는 77개국에 9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67개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열매는 2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누리교회는 2천/1만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2천 명과 사역자 1만 명을 파송한다는 것인데 드디어 2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2천/1만 비전을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2천 명과 사역자 1만 명 파송으로 확장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개교회가 선교사 2천 명을 파송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부 선교전문가들을 모시고 선교컨설팅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선교를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선교사 파송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

습니다. 선교현장에 꼭 필요한 역량 있는 선교사를 계획에 의해 파송한다는 원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팀사역 체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절반가량인 419명이 TIM(두란노해외선교회) 소속입니다. TIM에서는 선교사들의 개별적인 사역을 지양하고 팀사역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서 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주Acts29훈련센터’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드림교회와 함께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TIM은 터키 교회 연합수련회,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인 목사안수식, 도미니카 마코리스 교회 세례식 등을 열었고, NGO 더멋진세상은 미얀마 보건소 완공, 인도네시아 건강증진센터 완공, 멕시코, 필리핀, 모리타니, 우간다 초등학교 건축을 했습니다. 온누리M미션은 M공동체별 설날수련회, RUSTA(러시아권 연합 수련회), 스타트리 여름캠프, M미션 아웃리치, 연합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Acts29비전빌리지는 본국선교사 훈련학교, 본국선교사 리더십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선교 관련 사역보고는 웹진(하단 QR 코드)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선교 방향과 주요 과제가 무엇입니까?

“온누리교회 선교의 기본 방향은 융합선교입니다. 융합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인력, 사역, 프로그램, 재정, 경험 등 풍성한 선교자원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타 선교단체, 현지 교회 등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선교방법입니다. 원활한 융합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팀을 구성하고, 선교지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장기적인 선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교단체들을 찾아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촉매(Catalyst)로 기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섬기는 선교, 마중물이 되는 선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방개척, 지역개발, 이주민선교, 미디어선교, 지도자 양성 등 기존에 해오던 선교를 더욱 활발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올해 2000선교본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추방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20여 가정이 중국에서 비자발적인 추방을 당했습니다. 2020년이면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갑작스런 추방은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볼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교지 교회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현지 교회가 직접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OGP(Onnuri Global Partner)’라는 부서를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오디오 성경 보급 선교단체 ‘FCBH’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협력선교의 사례입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협력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제주Acts29훈련센터의 효율적인 가동입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과 선교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과 이주민 중에도 좋은 선교자원이 있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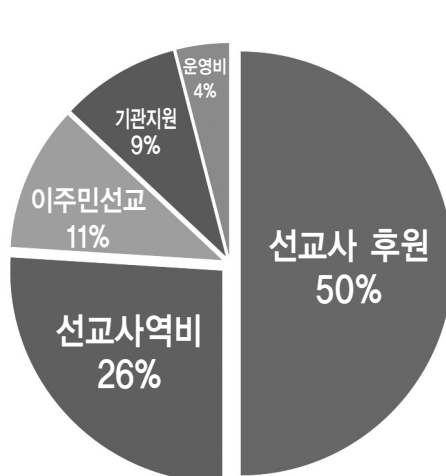
“선교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직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와이미션’ 과정을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재정과 기도, 재능으로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각 공동체마다 결연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하러 아웃리치를 가고, 순모임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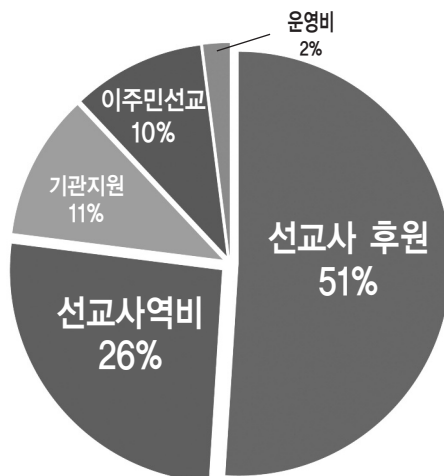


(2018 선교사역 보고)

선교비 집행 내역



2018년 선교비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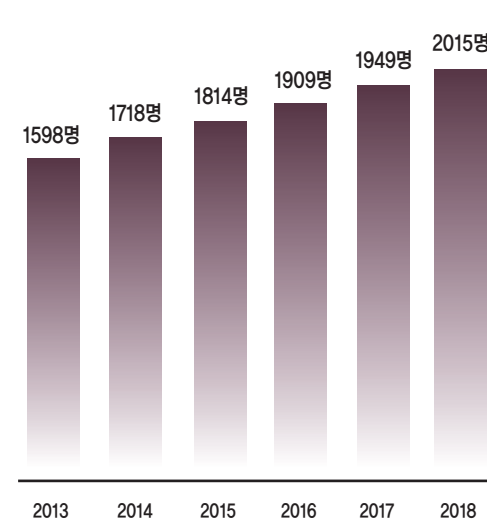


2019년 선교비 집행

구분	2018년 선교비
선교사 후원	5,970,101,999
선교사역비	3,028,374,373
이주민선교	1,252,490,281
기관지원	1,117,967,534
운영비	464,340,518
합계	11,833,274,705

구분	2019년 선교비
선교사 후원	6,008,000,000
선교사역비	3,126,000,000
이주민선교	1,171,000,000
기관지원	1,284,000,000
운영비	261,000,000
합계	11,850,000,000

연도별 선교사 파송 누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잘못된 것일 때도 많습니다. 전도서에 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에 대한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침묵한다면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절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을 때 성문 앞에 살던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여차피 성에 있어도 죽을 것이 뻔한데 이렇게 죽을 비에야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만약 아람 군대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성 안에서 끔찍하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고, 먹을 것, 입을 것, 금은보화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영문을 모른 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펼쳐진 먹을 것, 입을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왕하 7:9).

동족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소리로 알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들이 침묵

했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두가 알아야 할 기쁜 소식이 있는데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들이 느꼈던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병 환자들과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 9:16).

나병 환자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은 의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벌을 받을까 두려운 것보다 모두가 들어야 하는 소식,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때 오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 이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가끔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필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굶주린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필요를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은 참된 선교로서 불충분합니다. 선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포사이스(P. T. Forsyth)라는 분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들의 약점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무시코 드러난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심각한 필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보다는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의 필요를 내가 도와야겠다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의무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그 기쁘고 복된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결과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흘러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살전 1:5).

‘확신’이라는 단어는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확신이란 믿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가뭇돌 수 없습니다.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확신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흘러넘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

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온누리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흘러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A.D. 67년 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됩니다. 순교 직전입니다. 예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딤후 1:11~12).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확신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확신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와 임박한 심판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2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끈기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전파는 절박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잡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어떤 이들은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적절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지만 죄에 빠진 이들은 때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변화시켰습니다.

〈13면에 계속〉

신년기획

1. 크리스천과 돈

2. 크리스천의 유산상속

“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독이 될 수 있다
노예 되지 말고, 빚지지 말며, 하나님과 이웃 섬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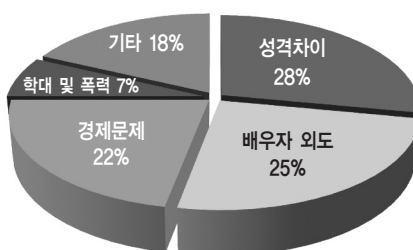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소망과 계획을 세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일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12월 31일 성인남녀 2,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소원' 설문조사 결과 1위 '취업과 이직' (46.7%), 2위 '경제적 여유' (44.8%)로 조사됐다. 취업준비생들의 새해소망은 취업(73.4%)이 압도적인데 반해, 대학생(48.3%)과 아르바이트생(48%), 직장인(42.1%)은 '경제적 여유'를 새해소망 1위로 꼽았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연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꿈꾸고, 저축과 보험, 펀드, 부동산 등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돈,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은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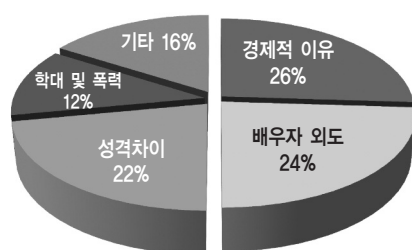
/ 정현주 joo@onnuri.org

이혼 사유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2012년



2009년



2012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 되는 부동산〉, 〈부의 추월차선〉,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이 책들은 교보문고 경제경영부문 베스트셀러들이다. 이 분야 베스트셀러 20위 권 안에 무려 절반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돈과 관련한 속담이나 격언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매우 많다. 대부분이 돈이 갖는 힘과 권력,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돈은 귀신도 부린다”(중국),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로마),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살아나온다”(일본), “예수도 돈 때문에 배반당했다”(히랍), “인간은 금화를 먹고 사는 돼지다. 금화를 던져주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나폴레옹),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베이컨),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마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탈무드), “돈은 많아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초조와 탐욕이 뒤따른다”(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많아도, 없어도 문제인 게 바로 돈이다

돈은 양날의 검과 같다.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독이 될 수 있다.

돈은 가정도 무너뜨린다. 한국은 OECD 국

가 기준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할 만큼 이혼율이 높다(2015년). 문제는 이혼 사유에 있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혼자 604명을 조사한 결과 이혼 사유가 경제적 이유(26%), 배우자의 외도(24%), 성격차이(22%), 학대 및 폭력(12%) 등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에서는 성격차이(28%), 외도(25%), 경제문제(22%) 순이었다.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에서 경제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뿐만이 아니다. 가정을 만드는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인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2030세대 2,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중에서 포기할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660명(57.6%)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항목과 이유를 살펴봤더니 연애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57.5%), 결혼은 '주택 마련 등 해야 할 것이 많아서' (49.8%), 출산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72.8%), 대인관계는 '취업 등 당장 더 급한 게 있어서' (53%), 내 집 마련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73%)였다. 돈이 없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 흘러가면 돈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은 나쁜지만 한 걸까? 그렇지 않

다. 돈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없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아플 때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많아도, 없어도 문제인 게 바로 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

예수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구절이 정말 많다. 신약 성경에 '믿음'과 관련한 구절 215개,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인데 '재정'에 관한 구절은 무려 2,084개나 된다. 예수님이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보다 돈과 재정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이 10배나 많다.

4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무려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였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돈 탐감하는 비유, 무자비한 종(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부자 청년 비유 등이 모두 그것들이다.

예수님은 물질과 돈이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첫째, 예수님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1, 24).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다.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부만 추구한다면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

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겼도다”(딤후 6:9-10).

둘째,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현대인들은 각종 대출과 빚에 둘러싸여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금 및 할부, 휴대폰 약정 등 빚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빚에 대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며 빚지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셋째, 잘 관리한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말씀하신다. 존 웨슬리(감리교 창시자)는 “지갑이 거둬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돈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지갑을 여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번 소중한 내 돈’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박한 마음은 십일조를 포함한 헌금, 구제, 기부는 물론이요 불우이웃을 향해서도 비난과 정죄의 눈빛을 보낸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위해 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잠 19:17).

영국의 대처 수상은 “오직 선한 의도만을 가졌더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을 도울 수 있었다는 의미다.

돈은 나쁜 게 아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다만 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돈에 열매이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계획되고 절제된 소비를 함으로써 빚을 지지도 말며, 돈을 잘 관리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진정한 부자였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을 기억하자(고후 8:9). 돈은 그냥 돈일뿐이다.

전문가 기고

금융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돈에 대한 태도와 지혜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가 되면 경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확인하곤 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사회 탐구 영역 응시자 22%만이 경제 과목을 선택했다. 역대 최저 수치이다.

한 현직 교사는 금융과 경제 관련한 학습내용이 기말고사가 임박한 학기말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이나 기술, 가정 시간에 금융 교육을 하지만 소비생활 등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다. 그 내용 자체도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학생들이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필자도 돌이켜 보면 학창시절 경제 과목을 통해서 금융을 접하긴 했다. 수요와 공급법칙 등 기본 이론들이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저축, 투자, 소비습관, 신용관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다.

성인들은 어떠한가? 그나마 백화점 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테크 강좌를 수강하는 전업주부들이나 군인들이 집합교육으로 듣는 금융교육이 대부분이다. 대다수 성인들은 금융교육을 받고 싶어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성인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의 금융교육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세계 각국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교육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신용불량과 개인파산, 금융사기, 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뿐이지만 금융을 모르는 금융문맹은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말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학교 교육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모두 표준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을 포함시켰다. 17개 주는 고교 졸업 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재테크 서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지혜롭게 교훈한다.”

건으로 금융과목 수강을 의무화했다. 수강내용으로는 은행계좌 활용, 신용등급 관리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이 중심이다. 학교에 모의은행창구와 같은 부스를 마련해놓고 학생들이 직접 은행 업무를 경험해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다. 재무부와 금융소비자청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융교육기관이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돈의 사용법부터 저축, 소비습관 등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금융지식을 가르친다. 초등학생은 선택 과목으로, 중고교생(11~16세)은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학 과목에도 경제,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결합해서 가르치도록 했다.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을 빼놓지 않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비롯한 성경말씀과 유대인들의 지혜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를 통해 자녀들에게 돈을 합리적으로 버는 방법, 지혜롭게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방법 등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금융교육을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나치의 잔인한 홀로코스트에 의해 6

백만 명 가량 목숨을 잃고 나서 유대인들은 나라와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가장 영특한 아이는 랍비가 되어서 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 영특한 자녀는 사업가가 되어 부를 정직하게 쌓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가르친다. 실제로 유대법에는 기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세계 최대 창업국가가 된 배경에는 그들의 돈에 대한 철학과 금융교육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듯하다.

미국이라는 세계최강대국은 ‘달러’라는 최대 기축통화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규모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금융교육’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00여 구절에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한다. 그러나 ‘돈’, ‘재물’과 관련된 단어는 이보다 4~5배 더 많은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4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들은 걸로 나와 있다.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 열므나 비유, 부자 비유 등 16가지가 돈을 소재로 한 비유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그 어떤 재테크 서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지혜롭게 교훈한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지인의 연대보증을 썼다가 지인의 야반도주로 보증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목사님이 그분을 위로하면서 성경에서 언급된 보증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며 “다시는 절대 보증서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자신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었다고 말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잠 11:15).

필자는 재무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기부와 구제를 통해서 돕는 게 낫지,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권유한다. 호의로 아무런 서류작성 없이 돈을 빌려주면 결국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본인이 채권추심자가 되어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투자는 또 어떠한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투기에 가까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 현재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펀드와 주식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자랐다. 그래서 주식과 펀드를 은퇴자금을 비롯한 장기적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 28:20).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른 금융과 경제교육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자녀 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투자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아이 이름으로 펀드통장을 선물로 쥐도 좋을 것이다. 백일, 돌, 생일, 크리스마스, 명절에 자녀가 받은 용돈을 자녀 이름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차곡차곡 모으게 하자. 그 통장은 미래의 학자금과 창업 등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통장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번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쓸 수 있도록 가르쳐보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 아닐까.

한국 디아스포라 차세대들이여,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로 오라”

이민자의 어려움은 외국에서만 겪는 일이 아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한국 디아스포라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어른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차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크다. 한국말을 못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 안타까운 차세대들을 품는 공동체가 있다. 양재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한국 디아스포라 차세대들이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Jesus Rock(유치부)예배가 27일 오전 9시 양재 충성홀에서 오픈예배를 드린다.

“영어를 못해서 치즈버거만 먹었다.”, “영어 발음이 어눌해서 학교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았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다.”, “미국 문화를 잘 몰라서 당황한 적이 많다.”

미국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이민자들이 있다. 고국으로 돌아온 한국 디아스포라 차세대들이다.

양재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는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1.5세와 1.5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열방을 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다. 12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돌보고 있다.

차세대들을 위한 다문화 예배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다문화 예배라는 점이다. 찬양, 소모임, 설교를 할 때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한다. 찬양, 공과공부 교제는 영어를 사용하고, 성경말씀과 설교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 디아스포라 차세대들의 어려움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영어가 더 편한 차세대가 있고, 영어와 한국어 둘 다 유창하지 못한 차세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는 다문화 예배공동체이다. 영미권에서 온 차세대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스리랑카, 중국, 과테말라, 프랑스, 태국 등지에서 온 차세대, 선교사 자녀,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다. 프랑스어와 중국어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다문화 공동체다.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윤효정 전도사는 다문화 예배의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외국에서 자란 차세대들이 한국어가 미숙하거나 외국어가 더 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일인데, 한국 학교나 교회에서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면 이곳은 친구들이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에서는 자기가 편한 언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사로 헌신하는 부모들이나 선생님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에서 온 교사들과 차세대들이 많다 보니 예배분위기가 자유로운 것도 특징이다. 학부모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 ‘열방을 품은 선교사’

예슬이(Jesus Crew(초등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3년 동안 생활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귀국했는데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 황소현 성도(송파공동체)는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 Jesus Crew(초등부)가 예슬이의 회복의 장이었다고 고백했다.

“예슬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힘들어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Point5공동체 Jesus Crew(초등부) 예배를 무척 즐거워했어요. 찬양과 다양한 체험이 무척 좋았나 봐요. 예배를 통해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지금은 잘 적응해서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예슬이는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한다.

“신나게 찬양을 하면 몸도 마음도 즐거워지거든요.”

에바(Jesus Crew(초등부))와 엘리(Jesus Vine(중고등부)) 자매도 예슬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엘리는 학교에서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은주 성도(Point5공동체)가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귀국하기 전에 자녀들이 적응문제가 걱정된다는 고민을 나눴더니 Point5공동체를 추천해주더라고요. 차세대 예배도 있고,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와 분위기가 비슷해서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며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 엘리에게서 더 이상 수심이 가득하던 얼굴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소그룹 활동에서 큰 힘을 얻었다.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선생님들의 조언과 돌봄이 빛을 발한 것이다. 엘리는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가 너무 좋아서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에서 회복된 한국 디아스포라 차세대들이 선교사로 성장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Jesus Rock(유치부)나 Jesus Crew(초등부)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 차세대들은 보통 Jesus Vine(중고등부)에 다닐 즈음이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마친다고 한다. 그때부터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선교에 대해 강조한다. 다양한 차세대 선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열방을 섬기는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또한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를 드리던 차세대들이 다시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때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송식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 ‘열방을 품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 각 부서의 슬로

건은 ‘믿음의 걸음마 Jesus Toddler(유년부)’, ‘반석 같은 믿음 Jesus Rock(유치부)’, ‘동행하는 삶 Jesus Crew(초등부)’, ‘열매 맺는 가지 Jesus Vine(중고등부)’이다.

Jesus Toddler(유년부)는 12개월부터 5세 차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현재 3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차세대들이 믿음의 걸음마를 떼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40분 양재 주기철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Point5공동체 성인예배를 드리는 부모들을 위한 차세대 예배다. 부모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다. 장소가 협소해서 Point5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부모들의 자녀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Jesus Rock(유치부)는 5세부터 8세가 대상이다. 현재 2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믿음의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믿음의 반석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양재 충성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Jesus Crew(초등부)는 학교생활을 시작한 차세대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한다. 초등학교 2학년년부터 6학년이 대상이다. 현재 70여 명이 출석한다. Jesus Crew에서는 차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양재 JDS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Jesus Vine(중고등부)는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을 강조한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양재 비전홀A에서 예배를 드린다.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는 꼭 이민 경험에 있는 차세대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1.5세, 2세, 한국 차세대들이 어우러져 예배드리고 있다.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는 선교사 자녀, 해외 이민 계획이 있는 차세대, 영어와 한국어가 능숙한 차세대, 다문화 예배를 경험하고 싶은 차세대 등에게 활짝 열려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오는 27일 오전 9시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에서 Jesus Rock이 오픈예배를 드린다. 담당교역자, 선생님,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른 부서 예배에도 참석해 볼 수 있다.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송인한 교사(Jesus Crew(초등부))는 “Point5공동체 차세대 예배에서는 각 문화권에서 온 차세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면서 “넓은 세상을 무대로 비전을 가진 Point5공동체 차세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Holy Spirit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영원한 피터팬 같은 사람을 만났다. 백발과 소년의 개구진 웃음을 동시에 지닌 원우현 장로(서빙고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원 장로는 74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것도 현지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몽골국제대학(MIU)에서 말이다. 한평생 쌓아온 명예와 혜택,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어찌면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다. 몽골에서 적응 과정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만 몽골행을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꿈꾸는 노년이 아름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꿈꾸는 노년이 아름답다”

책 〈은퇴 후 퀴바디스〉 펴낸 원우현 장로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뜻하구나...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수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으로 살 수 있네”

(사무엘 올만의 시 ‘청춘’ 中)

늘 청춘처럼 사는 원우현 장로가 새해 첫날 〈은퇴 후 퀴바디스〉(도서출판 다비다)라는 책을 펴냈다. ‘퀴바디스’는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말이니 풀어쓰면 ‘은퇴 후 어디로 가나?’가 될 것이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반대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환상으로 나타난) 십자가를 진 예수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반대자들을 향해 가는 예수를 본 베드로가 어떤 길을 택했는지는 안 봐도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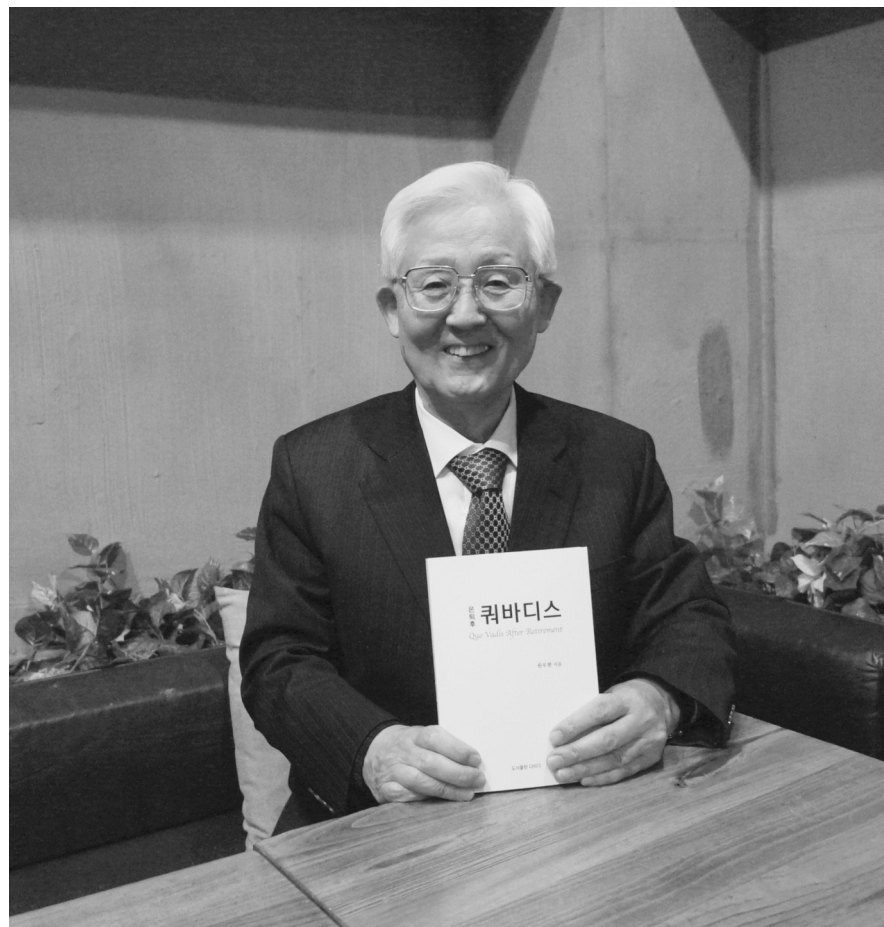
원우현 장로 또한 베드로처럼 일반인들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 그 선택과 결단이 책 〈은퇴 후 퀴바디스〉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책을 회고록으로 생각하고 읽어보려는 독자들이 계시다면 기대에 빚나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책은 내 인생의 노년에 한순간 무엇인가에 떠밀리듯이 선교지 올란바토르로 파송되어 시작한 작은 영적 journey의 발자취들을 모은 것이다.”

몽골에서 시작한 제2의 인생

원우현 장로는 올해 77세다. 언론학자로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2007년 정년퇴임했다. 그리고 2016년 돌연 몽골 올란바토르로 향했다. 당시 그의 나이 74세였다. 몽골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몽골말을 하지도 못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이끌린 결단이었다.

“노년의 목표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청하는 것을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몽골국제대학(MIU) 권오문 총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몽골국제대학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우현 장로가 자신의 책 〈은퇴 후 퀴바디스〉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몽골국제대학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원우현 장로는 권오문 총장이 요구한 최적의 사람이었다. 영어 강의가 가능하고, 언론학 분야에서 지식과 행정능력이 있으며, 선교사 역자로서 영적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 총장의 권유를 흔쾌히 수락했는데 걸리는 게 있었다. 당시 97세였던 홀어머니 황숙희 권사(올해 100세)와 아내 이방숙 권사(연세대 명예교수)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이었다.

“다행히 어머니와 아내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낯선 몽골 땅으로 떠나는 늙은 아들 손에 종이쪽지를 쥐여 주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주신 사명에만 최선을 다해라. 주님이 그 사명을 이뤄주시기 위해 너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가족들의 격

려를 받고 몽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런데 적응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

“번지점프 하듯이 그냥 뛰어내린 곳이 몽골이었어요. 몽골말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차도 없어서 이동하는데 무척 불편했어요. 올란바토르가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고산병 증세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교수님은 고산병 때문에 6개월도 못 버티고 귀국하기도 했어요.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 원 장로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이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몽골에서의 학원선교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되새기며 근심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몽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칠십 중반의 노인에게 무엇 하나 쉬운 결

정이 없었다. 한국에 있으면 편한 삶, 사랑하는 가족, 명예와 이력, 사회적 혜택이 보장되는데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난 것처럼 원 장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낯선 땅 몽골로 갔다.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는 몽골말 하나도 못하는 노인에게 불과하거든요. 몽골교회에서는 제가 한국 대형교회 장로인줄도 몰라요. 그곳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코과자 나눠주는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다

원 장로는 1989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가 온누리교회에서 30년을 보내면서 배운 것은 열정과 도전이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열정과 불타는 도전정신을 배웠습니다. 제가 몽골과 학원선교라는 사명을 발견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온누리교회예요.”

가족을 향한 감사와 사랑도 그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였다.

“평생을 같이 해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내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아내가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황숙희 권사님께 감사드려요. 어머니의 신앙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회심, 신앙, 기도,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원우현 장로는 “은퇴는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은퇴는 인생의 후반전이자 노년의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란 없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꿈꾸면 청춘입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꿈니다.”

겉보기에는 백발의 할아버지이지만 꿈꾸는 그의 모습은 20대 청년보다 더 청춘이었다.

작은 예수
40일새벽기도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 1월 5일 토요일

성령의 강권하심

행 20:17~24

이재훈 목사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인생의 마지막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바로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고 나의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과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게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루살렘에게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겸손과 눈물이 있습니다. 싫는데 억지로 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장차 뿌려질 씨앗을 통해 맺어질 열매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지만 장차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것을 바라보며 흘리는 비전의 눈물입니다. 소망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길 때 이루실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

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육신의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적 생명도 소중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 생명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의 분별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별력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가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혀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 1월 7일 월요일

성령의 치유와 회복

왕하 5:9~14

이기원 목사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는 방법까지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유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안에 있는 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환영하며 안수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 다. 나아만이 화가 났다는 것은 그 안에 회복해야 할 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분노하고, 짜증을 자주 내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쓴 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쓴

뿌리가 스스로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 것이 뭐가 힘든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전적인 순종과 인내’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인내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일곱 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에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온전한 순종과 인내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치유를 받는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병을 고친 이후 감사드리시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수행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

갔습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넘어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치유 받은 이후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아만은 치유를 받은 이후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치유를 넘어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은 육체, 정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나아만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 1월 8일 화요일

성령과 새 마음(1)

렘 31:31~34

이재훈 목사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단의 시험도 통과하

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

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와 말이다”(렘 31:31~32).

인간은 태초에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경우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담이 언약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옛 언약은 행동에 근거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

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할 대가를 예수님의 피로 미리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새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 1월 9일 수요일

성령과 새 마음(2)

겔 36:22~28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약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약속을 깨뜨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며 찾아오시기까지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가지를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

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스스로 용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 간격을 없애고 하나로 연합시켜주시는 본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하심은 새 언약의 세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린 해결책은 “내가 너희의 죄악 된 마음을 끌어내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리라”(겔 36:25~28)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풀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물로 씻겨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잘라냄으로써 가능합니다. 죄악 된 마

음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씻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수술입니다. 마음의 죄가 끊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이식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키는 본드 작용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오심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과 온전한 새 마음이 우리와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식될 줄로 믿습니다.

◆ 1월 10일 목요일

성령과 새 마음(3)

예레미야 24:7, 32:40~41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절정이 새 언약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성령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원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늘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 성령을 제거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됨, 교통함,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것

을 믿고 받아들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오직 은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나의 의지, 결정, 결의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형성시켜주십니다.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 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죽음에 처해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 죽음에 대해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됩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이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했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가운데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 1월 11일 금요일

성령과 생기

겔 37:1~14

이재훈 목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모두 심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

원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물이고, 예수님이 떠나간 것이 유익할 만큼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

라”는 명령이 우리가 원하는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일 때 주어졌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동시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 안에 가득한 마른 뼈를 봅니다. 뼈가 가득했고 그 뼈들은 아주 말랐습니다. 처참하게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주께서 아신다”고 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에 대해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 그 생기는 ‘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만 살아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갈 때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19 청년부 리더십콘퍼런스 'The One' 참가자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라!”

청년부 리더십콘퍼런스 'The One'

온누리교회 청년부 리더십콘퍼런스 'The One'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막 올랐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리더십 콘퍼런스에는 청년부 리더십 1,000여 명(교역자, 순장, 그룹인원, 사역팀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부 리더십콘퍼런스 'The One'에서는 6개 강의가 이어졌다. '성령

과 비전' 이재훈 담임목사와 이정선 사모, '성령과 정체성'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성령과 말씀' 김현미 목사(GIM 대표), '성령과 선교' 김해영 선교사(밀알복지재단 아프리카 권역장), '성령과 기도'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성령과 헌신' 조준목 목사(길공동체)가 강의했다.

김승수 목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

어와 영혼을 감싸기 시작하면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라”고 권면했다.

정선인 순장(SNS공동체)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했던 결단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원데이 부부특강'

2월 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가정사역본부 아름다운동행 커플링에서 '원데이 부부특강'을 2월 26일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개최한다.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원데이 부부특강'에서는 성경적인 가정관과 부부 문제 개선 방법을 가르쳐 준다. 부부치료 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 가족부 연구소)이 강의한다.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행복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9041-5538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이슬람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1월 26일~3월 9일 토 17시 양재 두란노홀

5기 와이무슬림 '이슬람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5기 와이무슬림 '이슬람선교학교'에서는 무슬림의 특징과 효과적인 무슬림 선교법을 배울 수 있다. 1주 이현수 대표(Frontiers 한국대표) '이슬람의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 2주 박경남 대표(WEC 한국대표)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

가', 3주 김아영 교수(햇빛트리네트 신학대학교대학원) '이슬람의 예수 이해', 4주 권지윤 부소장(이슬람연구소) '한국의 이슬람', 5주 정아나 선교사(희망의 마을센터) '무슬림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6주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무슬림에게 다가가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월 2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9064-6080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1월 20일 (주일) / 시간: 오후 3:30 /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자: 2018년 11월 4일~2019년 1월 5일까지의 등록 성도

강남A 이은주 정용문 최윤정	민중식 서혜정 여재익 이재벽 이순구 이승표 강남B 강신애 구인숙 김명범	강남C 김율이 박해나 윤영빈 이혜영 조영아 강남D 공국주	김희중 손형호 경기A 강설화 박경민	김미영 김수아 문우영 임지향 황용남	송은진 이길림 이민정 서초B 김기완 유지현 분당A 강영훈 김현정	서초C 김윤정 박해숙 송원자 엄윤아 홍미영 이정선 정미선 조용주	송파 공지혜 김명철 문소운 서명하 이명숙 이정선 정미선 조용주	홍지영 양재 김윤희 김종훈 박기현 박정민 배은영 신단비	이영주 이영희 이현미 이흥선 지정태 황송택	송영복 임중섭 푸른누리 김정하
--------------------------	--	--	---------------------------------	---------------------------------	---	---	--	---	--	---------------------------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3275	이현주	부천 희락	1133299	김민욱	강동 믿음	1133325	송은우	용산	1133355	박정자	남양주A
1133276	손금미	서초A	1133301	최윤정	강남A	1133326	오영민	용산	1133356	라현숙	대전 남누리
1133277	정승진	S브릿지	1133302	이진희	강남B	1133327	김진희	하브	1133357	양석정	마포
1133278	박자은	인천 소망	1133303	민중식	강남B	1133328	정수현	하브	1133358	고형준	강남C
1133279	유지희	J4U	1133308	임근	여호수아	1133336	이명인	강동 프리스	1133360	이지영	대전 남누리
1133280	명혜진	S브릿지	1133309	이창현	여호수아	1133337	김지인	강동 프리스	1133361	최진석	SNS
1133281	김정희	양지 동누리	1133310	송유진	여호수아	1133338	이시은	J4U	1133362	이덕규	SNS
1133282	김정주	부천 믿음	1133311	이혜란	여호수아	1133339	김소희	J4U	1133363	김영기	SNS
1133283	김수환	영등포구로	1133312	김현희	여호수아	1133340	임지수	J4U	1133364	신승은	SNS
1133284	이은영	서산온누리	1133313	고현성	여호수아	1133341	김동휘	J4U	1133365	임수빈	SNS
1133285	박해나	강남C	1133314	이교운	여호수아	1133342	이명숙	송파	1133366	조한나	SNS
1133286	김영희	인천 소망	1133315	조혜정	여호수아	1133343	김양숙	양재	1133367	김윤하	SNS
1133289	강영훈	분당A	1133316	신민혜	여호수아	1133345	전누리	수원 북누리	1133368	김윤경	SNS
1133290	강영순	성북	1133317	장주동	여호수아	1133346	구인숙	강남B	1133369	임수경	SNS
1133291	박수현	인천 소망	1133318	김서운	여호수아	1133347	권현진	송파	1133370	박새라	SNS
1133293	마준준	대전중광예배	1133319	김우진	여호수아	1133348	박현정	성동광진	1133371	이세엽	SNS
1133294	성숙자	중종로	1133320	김지현	여호수아	1133349	안혜경	북누리	1133372	김은진	SNS
1133295	김봉석	도곡	1133321	박지애	여호수아	1133350	정미선	송파	1133373	김한수	SNS
1133296	박선영	OCC	1133322	박진서	여호수아	1133351	정세라	하브	1133374	손성숙	SNS
1133297	양재		1133323	이지영	여호수아	1133352	고승찬	S브릿지	1133375	문수임	SNS
1133298	김정하	푸른누리	1133324	선고은	OCC	1133354	염문섭	동작			

남양주M미션, 헵시바의료팀 봉사자 모집

남양주M미션 헵시바의료팀에서 의료진(내과, 치과, 간호사, 약사), 봉사자, 의약품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의정부 인근 터키공동체를 위한 의료사역에 함께 할 의료진(내과, 정형외과)을 애대게 찾고 있다.

헵시바의료팀은 2018년 3월부터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료사역팀이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010-3937-3927

평택M센터, 베트남어예배 위한 기도모임 중

평택M센터 베트남어예배 준비가 한창이다. 평택M센터 베트남어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품고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0-6343-7588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후원자 찾습니다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팀에서는 예배에서 사용할 노트북 3대와 신시사이저(전자 피아노의 일종) 1대를 후원해 줄 후원자를 찾고 있다.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는 몽골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모임이다. 약 40여 명의 이주민들이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드리고 있다. 문의: 010-6343-7588

■ 행복반 41기 수료 간증



/ 김인희 성도(은혜광성교회)

뒤늦게 찾아온 행복

전쟁으로 무너진 성벽처럼 가정, 신앙,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진 폐허 같은 상태였다. 불안이 심해지면서 불면증이 찾아왔고, 우울증을 넘어 조울증 상태까지 진행됐다. 공황장애까지 더해져 문밖을 나갈 수 없었다. 1년 넘게 병원을 다니며 약도 먹어보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담당 의사마저도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졌다. 날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죽기를 소원했다.

나에게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으로 기억됐다.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이 강렬해서인 것 같다. 혹여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가 벌을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예배를 빠진 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다. 경직된 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무서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애를 썼다.

회복사역 행복반에 한 주 한 주 나가면서 피해의식, 외로움, 상실감 등에 사로잡혀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아들의 무능함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시부모님한테 욕먹고 쫓겨난 일도 용서했다. 지금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 아침마다 말씀문자를 보내고 있고, 시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행복반 과제였던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할 때였다.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나를 따라 오거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 같았다. “혼자 가지 말고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힘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쓰던 버거운 삶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다. 행복반에 참가하면서 생각지 못한 행복들이 뒤늦게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통장에 돈이 끊기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다. 매일 큐티하는 일이 즐겁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된다. 매일 죽기를 소원하던 삶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삶으로 변했다. 나는 지금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문의: 010-6761-4350

■ 사랑애틀눔 행사 참가후기



/ 오지은 자매(여호수아공동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지난해 11월 ‘사랑애틀눔’ 행사 광고를 듣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을 했다. 사실 나는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랜 걸린다. 그런 내가 사랑애틀눔 행사에 선택 참가를 결정한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마 재작년 사랑애틀눔 행사에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재작년 사랑애틀눔 행사에서 뵈었던 어르신들이 떠올랐다. 어르신들은 낮은 청년들의 방문에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시원한 음료를 대접해 주셨다.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청년들도 어르신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때 그 짧은 시간과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가 그날 어르신들에 전해준 것은 물품과 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고 싶어서 이번 사랑애틀눔 행사에 참가했다.

청년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했다. 나도 열심히 물건을 날랐다. 언덕길을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 상자를 들고

있는 팔이 당겼지만 힘든 것은 잠시뿐이었다. 힘든 과정을 잊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한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오랜 세월 혼자 지내셨다고 수줍게 말씀하신 할머니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다. 우리는 할머니의 외로움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동행한 청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 청년이 “교회에 가시면 하나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교회에 한번 가 보았으나 헌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 그 이후로는 안 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값이 없어요”라고 말하려다가 그 은혜를 너무 염치없이 누리는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이후에 독사진을 한 번도 찍어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동행한 온누리신문 기자가 할머니의 독사진을 찍어줬다. 우리는 그 사진을 인화해서 지난 주말 청년들과 함께 할머니께 사진을 전달해 드렸다. 할머니께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 남양주 온누리교회 세례 간증



/ 보티 려우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베트남 사람이다. 10년 전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한국에 온 이후에도 복음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난 이후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주님 없이는 나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어, 문화, 사람, 환경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남편 하나만 믿고 한국에 왔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나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다.

한국에 온 지 4년쯤 되었을 때 아기를 갖고 싶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매우 슬펐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씀하셨다. 시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갔다. 하지만 서툰 한국어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설교 시간은 매우 지루하고 따분했다. 졸

음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나는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혼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빠지곤 했고 결국 나가지 않았다.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기만 키웠다.

어느 날 전에 알던 한 권사님께서 다시 교회에 다니자며 나를 전도했다. 그 권사님을 따라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행복한 하나님’이었다. 그 예배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성경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주실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 부천 비전성경통독 후기



/ 유찬영 자매(부천 온누리교회)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해 1학기 때는 정신없이 성경통독을 했다. 2학기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성경통독을 할 수 있었다. 1학기 때는 빠르게 비전성경통독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아찔하거나 불안했었다. 하지만 2학기에는 듣는 속도가 더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짧은 성경 구절에서도 묵상이 가능해져 성경을 읽는 맛을 알아갔다. 1학기에는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2학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했던 웹툰을 끝은 것이 2학기 성경통독의 최대 은혜였다. 웹툰 한편 보며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웹툰을 한번 보면 거의 2시간 넘게 보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도 웹툰에 빠져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웹툰을 읽는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갔다. 지금은 여유시간이 생겨도 웹툰을 보지 않게 되었다. 웹툰처럼 드라마도 많이 봤었는데

좋아하던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자연스럽게 TV와도 멀어졌다.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정립되어 갈수록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지 않을 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바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나는 비전성경통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성경통독 중간에 좌절의 동굴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보다 빠르게 탈출했고 회복되었다. 아직도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옛 습성이 내 안에 남아 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컸는데 성경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결단하게 되었다. 지금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환우들을 위한 음악 감상회



안동혁 장로
(이수공동체)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가야금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래서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 그 영향으로 중학교 때는 YMCA 합창단에 들어갔다. 합창단 생활은 나에게 아름다운 화음 소리를 느끼고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을 선물했다. 그리고 음악 선생님의 추천으로 어린이회관 교향악단에 들어갔다. 나는 그때부터 크고 멋진 더블베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상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음악을 듣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필하모니’라는 고전 음악 감상실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오랫동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해오던 나는 몇 년 전 우연히 아이리버 고음질 음악 플레이어 ‘아스텔 앤 켄(Astell&Kern)’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음악 감상실을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태원 스트라디움 홀에서 뮤직 큐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이리버 고음질 음악 플레이어 ‘아스텔 앤 켄(Astell&Kern)’에서 나오는 소리는 MP3, CD의 음질보다 오백 배에서 몇 천 배 이상 라이브 소리에 근접하다. 음악의 세밀한 소리를 고음질 플레이어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음악은 미술과 달리 우리의 지성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귀를 통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준다. 좋은 소리에 자극을 받은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배출하게 한다. 좋은 음

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되는 현상이 바로 이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음악치료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어느 날 클래식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몇 사람에게 고음질 음악을 들려주면서 곡에 관해 설명했다. 영상, 라이브 연주, 해설 등을 통해 사람들이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음악 감상만으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날 이후 그분들을 중심으로 매주 음악 감상회를 스트라디움 홀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담낭암으로 투병하던 한 친구가 암이 척추를 눌러 걷지 못하고 꼼짝 못 하는 상태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라 문병을 갈 때 악기를 들고 가서 그 친구를 위해 연주했다. 말기암으로 통증과 음식을 거의 섭취할 수 없었던 친구는 내 더블베이스 연주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에게 다른 환우들에게도 음악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환우들도 내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다. 얼마 후 친구는 하늘나라에 갔다.

나는 그 일을 계기로 호스피스 병원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연주 사역을 꿈꾸며 매달 병원을 찾아가 연주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역을 시작하는 게 조심스럽고 두려웠다. 하지만 계속된 연주를 통해 환우와 스태프들과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 병실이 내 집 같이 편안한 곳이 되었다. 앰프와 스피커를 가져가 환우들을 위한 음악 감상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케스트라에서 몇 천 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병실을 찾아가 환우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며 연주할 때 훨씬 큰 보람을 느낀다. 부족한 나를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다.

권사칼럼

삶의 우선순위



한성자 권사
(강동 온누리교회)

2016년부터 강동 온누리교회 대표 권사로 섬기고 있다. 처음에는 이 직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대표 권사로서 권사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기에 은혜를 구하며 묵묵히 해나갔다.

내가 강동 온누리교회에 와서 처음 맡은 사역은 공훈사역이었다. 강동 온누리교회 공훈사역팀은 격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가 섬기고 있다.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공훈사역팀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했다. 하지만 대표 권사를 맡으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어쩔 수 없이 작년 부터는 공훈사역팀을 내려놓게 됐다. 나보다 공훈사역팀을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강동 온누리교회 권사회 대표 권사직에 집중하며 교회와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에는 말씀공동체와 믿음공동체가 있다. 권사회도 공동체별로 나뉘어 있다. 나는 강동 온누리교회 권사회가 조금 더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강동 온누리교회 권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다. 권사회뿐만 아니라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중보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님이신 노치형 목사님은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신다. 노 목사님의 방은 항상 열려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 목사님과 상담할 수 있다. 나는 노 목사님의 열정을 보면서 내가 맡은 사역에 더욱 헌신하게 됐다.

강동 온누리교회 권사회에서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믿음공동체와 말씀공동체가 각각 1부와 2부 예배 시작 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각 공동체 대표 권사님들이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계신다.

강동 온누리교회 권사회는 성도님들의 경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장례가 있는 곳에 찾아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준다. 환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 권사회 모든 권사님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한다. 청년부, 사랑부, 유년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들이 이 세대를 분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차세대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나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강동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계신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동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강동 온누리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한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말씀으로 사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강지영 목사
(양재 차세대)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사 61:1).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혼자가 아닌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더욱 힘차게 그 믿음의 길로 행하셨던 것이다.

나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2019년 온누리교회 표어를 묵상하며 진 다녔다. 이 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쓰임 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큰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지시고 다듬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믿음의 고백’, ‘자신을 내어드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성령님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저자의 삶을 살펴보면 2019년 더 가슴 뛰고 흥미진진한 특별한 시간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됐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인 것을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다.

“내가 네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 네 수고와 봉사와 시간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너를 위해 나를 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도 네 자신을 내게 다오. 사역은 잠시 내려 두

고 나를 경배하렴. 그렇게 하면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할 거야.”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작은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많은 것을 놓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시도록 내어드리면 그분의 뜻대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신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믿음의 순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떼는 순간 광야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왜 말씀 전파를 엄숙히 명령합니까? 그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1절).

말씀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박한 심판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대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처한 절망적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교적 로마 황제와 관리들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공정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시절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완전히 결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네로의 핍박에 의한 자신의 죽음이나 다름없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를 사형에 처할 수는 있으나 다가오는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는 단 1초도 단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고 있지만 장차 오는 시대에는 더욱 복음을 훼방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사람들은 더욱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교회를 핍박할 것을 앞섰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딤후 4:3-4).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분위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이념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들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합니까? 둘째, 전쟁 소식과 소문이 도처에 등장합니다. 셋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과거 1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빈도가 그 10년 이전 1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 많습니다. 넷째,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중국, 인도 등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식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사람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 반항적이며,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이념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역을 마치고 1974년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심판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말씀 전파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종말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일입니다.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아주 특별한 세미나

C. S. 루이스가 안내하는 ‘본향으로의 여정’



한다. 여기 C. S. 루이스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세미나가 열린다.

C. S. 루이스의 사상과 삶을 들여다보고, 그가 안내하는 순례의 길로 함께 떠나는 ‘본향으로의 여정’ 세미나가 1월 2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가 주최하는 C. S. 루이스의 ‘본향으로의 여정’ 세미나에서는 ‘순례자 루이스: 그의 삶 이야기’, ‘루이스 신학의 목회적 적용’, ‘JOY: 현세에 드리운 천국의 그림자’, ‘안다는 것에 대하여; 루이스의 참여적 지식론’ 등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박성일 목사는 한국인 최초로 C. S. 루이스의 신학을 주제로 논문을 쓴 학자이다. 박 목사는 C. S. 루이스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에 ‘C. S. 루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신학’을 주제로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향으로의 여정 세미나에는 C. S. 루이스 영성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교역자(전임 및 파트)는 필참이다. 회비는 2만 원. 1월 1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원 할인해 준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이

C. 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 변증가이자 시인, 작가, 비평가, 영문학자이다.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례자의 귀향〉, 〈고통의 문제〉, 〈예기치 못한 기쁨〉 등이 그의 작품이다.

특히 소설 〈나니아 연대기〉는 전 세계 29개 언어로 번역돼 85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르곤의 〈어스시의 마법사〉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대작이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전투’는 카네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문학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로이드 알렉산더(판타지 작가)가 “이 시대에 판타지라고 불리는 모든 작품들은 〈나니아 연대기〉와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C. S. 루이스에게도 신앙의 방향기가 있었다.

C. S. 루이스는 아일랜드 성공회에 다니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15세 때 무신론자가 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된 C. S. 루이스는 신화와 초자연적인 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 동창이자 소설 〈반지의 제왕〉 작가인 톨킨과 친구들의 영향으로 1929년 다시 기독교로 회심한다. C. S. 루이스는 회심한 이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정신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다.

이번 세미나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 한 권 있다. 〈본향으로의 여정〉(두란노)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C. S. 루이스의 신학과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안내서이자 훌륭한 연구서이다.

‘타향살이’, ‘본향 쪽으로 돌아섬’, ‘본향길에 누리는 본향’, ‘마침내 이른 본향’, ‘루이스 신학의 중심’, ‘루이스 신학의 성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 S. 루이스의 삶과 사상을 균형 있게 조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C. S. 루이스의 변증학과 신학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문의: 02-2078-3264(일반 등록)

02-3215-3267(교역자 등록)

많은 이들이 C. S. 루이스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C. S. 루이스의 책과 말을 설교에 인용한다. 그런데 정작 C. 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영향력이 왜 지대한지 제대로 알지 못